

전주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나서

전주형 성장사다리 강소향토기업육성 업무협약식 개최... 시제품 제작·생산공정 개선

전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이 작지만 강한 향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과 생산공정 개선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시는 11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 기술교육센터에서 김승수 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정동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주)피치 케이블 등 성장사다리사업 선정기업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성장사다리 강소향토기업육성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강소향토기업육성 성장사다리사업'은 소기업이 중기업, 중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

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전담기관으로 선정해 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참여기업 모집을 통해 지원한 5개 분야 65개 기업 중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주)피치케이블과 (주)에이스 등 30개 기업을 최종 성장사다리 지원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R&D연계 시제품 제작 지원, 생산기반 공정개선 지원, 디자인개발 및 마케팅지원, 기업경영 비즈니스, 표준화인증 지원 등 5개 지원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받아 성장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성장사다리사업으로 선정된 30개 기업 대표들은 전주를 대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 상호협력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다짐했다.

또한, 선정된 성장사다리 기업들이 서로간의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기업간 연대강화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뫼(이)업종 융합산업 포럼'도 연간 3회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10배 늘어난 수출 지원 예산을 편성해 해외시장 개척을 돕고 있다.

시는 또 기업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끝까지 해결책을 찾는 기업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도 전개하고 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올해 선정된 중소기업이 성장사다리 사업을 통해 성장해 기업경쟁력이 향상되고 일자리를 창출해 전주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기업 애로사항 정책반영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경진원, 중장년 작은창업 2기 교육 수료식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11일 4050세대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해 실시한 '중장년 작은창업 2기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4050세대의 창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한 '4050 행복창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초 교육부터 사후지원까지 단계별 창업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단계 과정은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공통교육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총 6일, 30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 57명 교육생이 3:1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고 선발돼 교육에 참여했다.

2단계 심화과정은 1단계 교육수료생 중 우수자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8일부터 11일까지 총 13일, 70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유망 아이디어 및 시장 발굴을 위해 1인 제조·서비스 아이디어 창업과정과 글로벌밸류과정으로 세분화된 교육을

진행했으며, 창업 사전경험 축적을 위해 현장실습을 강화했다.

한 수료생은 "이번 창업교육 수업을 통해 실제 창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고마움을 표했고, 경진원 관계자는 "열성적으로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앞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우수한 선배 창업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한편 4050세대가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공창업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이번 교육은 수료생의 안정적인 창업시장 정착을 위해 특전으로 창업자금 특별보증을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전북도가 창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부담의 경감을 위해 작년 한도액보다 2,000만원을 증액한 금액이며, 특별보증 외에도 창업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비 지원,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사후지원책이 마련돼 있다.

/인재용 기자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 대학생 장학금 수여

전개공, 지역인재 성장 지원 위해 마련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10일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 장학금 전달 및 조손가정 힐링 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장학금은 신학기를 앞두고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전북개발공사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가 훌륭한 지역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조손가정 힐링 투어'는 자녀의 사별 및 맞벌이 등의 사유로 인해 손주를 육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아이들이 조부모와 친밀감을 형성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

해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본부와 함께 도내 조손가정 60여명을 초청해 워터파크 물놀이 체험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동심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손주들과 물장구를 치고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으며,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격려했다.

교재찬 사장은 "신학기를 맞은 청년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손주를 돌보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는 멋진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10일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 장학금 전달 및 조손가정 힐링 투어를 실시했다.

며, "앞으로 우리공사는 도민의 행복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 '생생樂 페스티벌' 성료

전북은행은 지난 10일 전북대 삼성문화관에서 '제8회 생생樂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페스티벌에서는 예상을 통과한 9개 고교밴드와 교사가 함께 참여해 열연 경연을 펼친 결과, 전북사대부 고교 영예의 대상, 해성고 최우수상, 배영고와 원주고 우수상, 배영고와 성심여고가 인기상을 각각 수상했다.

JTV FM 장혜라의 행복발전소' 특집 공개방송으로 펼쳐진 이날 행사에는, 정미여관, 신현희와 김부트, 더이스트라이트, 어린이 댄스팀 JTV원더키즈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해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생생樂 페스티벌'은 스승과 제자가 무대에 올라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국내 유일의 경연대회로, 전북지역 청소년들이 학업

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맘껏 해소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전북은행에서 매년 무료로 개최하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매년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고교밴드의 열정과 함께 참여하는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북교육청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용택 전북은행장은 "이번 행사의 본선무대에 오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참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전북은행은 시민을 위한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며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전북농협은 11일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와 합동으로 을지연습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1일부터 실시하는 2017 을지연습을 앞두고 연습의 효과적 수행으로 연습성적을 극대화하고자 그동안 준비상황 및 계통사무소의 협조사항을 점검하는 등 비상사태발생시 농협 소관분야의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농협은 사전교육을 통해 농협계

통사무소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 등 그동안의 을지연습 진행사항과 각종 위기에 대비한 복합적 위기 상황을 가정한 사전메시지 검토와 다양한 상황조치 등 내실 있는 을지연습을 점검했다.

또한 을지연습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홍보 영상물 시청 등 2017 을지연습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을지연습 중점사항을 검토했다.

/인재용 기자

캠코, 전북지역 압류재산 35건 공매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75억원 규모, 총 35건을 은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공매는 전북도민에게 유익한 공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매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가 진행하는 주요 공매물건에는 김제시 금구면 소재 임야와 군산시

내운동 소재 판매시설, 익산세무서 조사과내 압류 보석 등이 있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은비드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공매 입찰 결과는 17일 11시 이후부터 은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한전 전북본부, 독거 어르신 보양식 대접 나서

한전 전북본부 사회봉사단과 노사간부는 지난 10일 전북노인복지관에 350여명의 무상 급식 독거 어르신들에게 보양식을 대접했다.

이날 행사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혹서기를 맞아 어르신들께 보양식 대접과 함께 말벗이 돼 줘 단조로운 일상에 활력을 선물했으며, 정마철 안전 전기사용 요령과 합리적인 전기

사용으로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주방용 생활용품을 선물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외 계층을 위해 섬김 문화를 실천함으로써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 문화를 정착시켜 갈 것"을 다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라북도 전북농협

자연의 건강한 미소

예담채

예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